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27.(금)

딥페이크·온라인 폭력 등 AI 시대 아동 위기, '아동의 시선'으로 해법 찾는다

- '아동이 기획하고 아동이 완성한' 제17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
- 51개국 200여 명 아동·청소년 기고문으로 의견 제시 -
- 디지털·AI 시대 아동권리 보호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11월 27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6년 제17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해 **「디지털·AI 시대, 아동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 전문가 분과와 2부 아동 분과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분과**에서는 **AI와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아동 분과**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준비한 조사 결과와 의견을 발표**했다.

* ▲(전문가 분과) AI 전환과 아동 권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연주 수석 연구원),
▲(전문가 분과) 법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AI와 아동보호 (가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
▲(아동 분과) 세계의 아동들이 바라본 AI와 아동보호 (베가플랫폼 김도아·이건희),
▲(아동 분과) AI 시대 속,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무 (초록우산 유서현)

특히 올해 포럼은 **‘아동이 기획하고 아동이 완성하는’ 아동 주도형 포럼**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구성된 **포럼 준비단**에 참여한 아동들은 **문헌조사, 아동·보호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포럼의 의제 발굴부터 기고문 작성과 발표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청소년 주도의 글로벌 비영리단체 베가플랫폼(Vega Platform)과 협력해 전 세계 51개국 200여 명의 아동·청소년도 기고문으로 아동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참여 아동들은 AI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온라인 폭력, 딥페이크 등 새로운 권리 침해 위험에 주목했다. 또한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의 필요성과 AI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폭넓게 고려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아동이 직접 디지털·AI 환경에서 겪는 문제를 살펴보고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정부도 **아동들이 제시한 의견을 경청**하고, **디지털·AI 환경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아동이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견이 정책과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제17회 아동권리포럼 포스터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정소희 (044-202-3424)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권리정책본부 권리지원부	책임자	부 장	한명애 (02-6454-8561)
		담당자	대 리	채윤경 (02-6454-8569)

붙임 | **2026년 제17회 아동권리포럼 포스터**

